

# 중국 전기차 공세...국내 자동차산업 '흔들'

## 국산 점유율 하락·부품 생태계 위축...생산기반 타격 보급 확대 중심 정책 한계...“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국내 시장 공세가 거세지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기반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전기차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산 점유율은 하락하고 중국산 점유율은 급증하면서 완성차를 넘어 부품업체와 고용, 공급망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급 중심에서 국내 생산 유도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최근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경쟁시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체,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기차 경쟁 심화에 따른 산업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까지 급증한 반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에서 57.2%로 하락했다. 불과 2년 사이 시장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며 수입 전기차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판매 증가 속도 역시 중국산이 더 빠르다. 올해 1분기 기준 국산 전기차는 5만 1000대로 전년 대비 126.1% 증가했지만,

중국산은 2만5000대로 286.1% 급증하며 시장 잠식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산차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 같은 수치가 단순한 점유율 변화가 아닌 산업 구조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완성차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부품업체 투자 축소와 기술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수많은 부품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인 만큼, 생산기반 붕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기반까지 약화

될 경우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 전환과 인력 확보의 이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존 설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입차 비중 확대까지 겹치면서 생산 기반 유지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정책 대응이다. 현재 정부 정책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집중돼 있는 반면, 국내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중심 정책만으로는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국은 이미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

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시장 방어에 나섰다. 일본은 전기차를 포함한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해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미국 역시 자국 내 생산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주요국들이 생산기반 유지와 공급망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한국만 보급 확대 중심 정책에 머물 경우 산업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호 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내 산업이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연구개발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 지

원, 인프라 구축, 시장 방어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실제 국내 생산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전기차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비용을 낮추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핵심”이라며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같은 직접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전기차 확대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선택을 넓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기반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은 기업 지원을 넘어 소비자가 경쟁력 있는 국산 전기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현대차, ‘더 뉴 스타리아’ 전동화·리무진 출시

정제된 디자인·다양한 편의기능...차별화된 경험 제공

현대자동차가 대표 다목적차량(MPV) ‘더 뉴 스타리아’의 전동화 모델과 최상위 고급 모델을 추가하며, 스타리아 풀 라인업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다목적차량(MPV) ‘더 뉴 스타리아’의 전동화 모델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과 최상위 고급 모델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2026 브뤼셀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정제된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 84.0kWh의 4세대 배터리,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승차감, 전동화 기술 기반 편의 기능을 갖췄다.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신규 적용된 이그제큐티브 시트, 동급 최고 수준의 승차감, 다양한 편의 사양을 통해 품격 있는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동화 모델과 리무진 모델 출시에 따라 더 뉴 스타리아는 기본 모델 ‘투어러(LPI 11인승, 하이브리드 9·11인승, EV 11인

승)’, 밴 모델 ‘카고(LPI 3·5인승, 하이브리드 2·5인승, EV 3·5인승)’, 고급 모델 ‘라운지(LPI 7인승, 하이브리드 7·9인승, EV 7·11인승)’, 최고급 모델 ‘리무진(하이브리드 6·9인승, EV 6인승)’ 등 총 18개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전면부에 하나의 수평 라인으로 이어진 연속형 램프를 적용해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강조했고 외장형 액티브 에어 플랩과 전면 충전구를 최소한의 파팅 라인으로 구현해 전기차 특유의 정제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실내는 동급 최대 수준의 2.3열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해 다인승 이동 환경에서도 여유롭고 편안한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은 지난해 12월 출시된 더 뉴 스타리아의 최고급 모델로 고급스러운 내외장 디자인과 차별화된 탑승 경험을 통해 VIP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상품성을 확보했다. 하이브리드 6인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내장



승, 하이브리드 9인승, 일렉트릭 6인승 등 총 3가지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리무진 하이브리드는 전면부에 직사각형 블록 패턴의 블랙 크롬 그릴을 적용해 첨단 이미지를 강조하고 프론트와 리어 범퍼 하단부, 사이드 실에 골드 색상의 가니쉬를 적용해 한층 고급스러운 인상을 구현했다. 특히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 6인승 모델에는 2열 전용 프리미엄 시트인 ‘이그제큐티브 시트’를 적용해 기존 MPV를 넘어서는 차별화된 VIP 탑승 경험을 제공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캐스퍼 일렉트릭, 유럽 소형 전기차 평가 ‘썩쓸이’

현대자동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이 독일의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의 소형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전 항목 1위를 기록하며 종합 우승을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을 비롯한 시트로엥 ‘e-C3’, BYD ‘돌핀 서프’ 등 유럽 시장의 소형 전기차 3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총 800점 만점으로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커넥티비티, 친환경성, 경제성의 7개 항목을 평가받았다. 특히 캐스퍼 일렉트릭은 7개 전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하고 총점 558점을 획득하며, 2위 돌핀 서프(503점)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아우토빌트는 파워트레인 항목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의 탁월한 전력 소비 효율을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아우토빌트의 실주행 테스트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였으며, 해당 실속 소비 전력을 기준으로 환산한 실주행 거리 역시 308km로 돌핀 서프(253km)를 크게 앞질렀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성에서도 차별화된 강점을 보였으며, 특히 바디 항목 내 다용도성 평가에서 큰 격차로 앞섰다.



현대차, 독일 아우토빌트 비교 평가에서 전 항목 ‘1위’ 실속 최고 전비·실주행 최장 거리 기록...경쟁력 입증

‘2열 슬라이딩 시트’와 ‘조수석 안전 폴딩 기능’을 통해 탑승과 적재 상황에 따라 실내 공간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또한 100km/h에서 정지까지의 제동 거리는 35.8m로 경쟁 모델 대비 최대 3m가량 짧았으며, 여기에 정교한 조향 성능까지 더해져 주행성능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편 캐스퍼 일렉트릭은 아우토빌트가 함께 실시한 ‘출퇴근 및 가성비 중시 소비자’를 위한 최고의 소형 전기차’ 평가에서도 르노 ‘4E-Tech’, 피아트 ‘그란데 판다 일렉트릭’, 시트로엥 ‘e-C3’,

BYD ‘돌핀 서프’, 리프모터 ‘T03’ 등 5개 경쟁 모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 유럽 소형 전기차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9447대를 판매해 세그먼트 내 선두권을 유지하며 존재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2026 영국 탐가이어워즈 ‘올해의 경차’, 2025 월드카 어워즈 ‘세계 올해의 전기차’, 2025 독일 골드 스티어링 휠 어워드 ‘2만5000유로 미만 최고의 차’, 2025 영국 왓 카 어워즈 ‘최고의 도심형 소형 전기차’ 등을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꾸준히 입증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안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